

전북특별자치도, 설 명절 대책 추진

민생지원·지역경제 등 4개 분야 15개 과제 중점 소외계층 온기 나눔문화 확산과 소상공인 등 집중

전북특별자치도는 보다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 등 생활 물가 안정대책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소외·취약계층 돌보는 나눔문화 확산, 재난·재난 대응 등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3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설 명절은 '어려운 곳은 더 살피고, 다함께 활기 넘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설 연휴(2월 9일~12일)기간 중 종합상황실(재난·재해 대책 등 7개반)을 운영하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

응태세를 유지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3년 초 5%에서 출발한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3%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이상기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물가 개선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민을 비롯한 귀성객들을 위한 특별교통대책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각종 편의지원과 명절 기

간 한파·폭설, 화재 등 재난·재해 안전사고와 감염병 등에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명절 연휴 기간 생활 물가 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며 설 물가동향 파악,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동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과 설 성수품 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가격 표시제 점검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으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고, 올해부터는, 그동안 도청 주무과장으로 구성되었던 시·군별 지역 물가책임관을 실·국장급으로 상향해 14개 시·군의 물가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16대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 등 보다 강력한 물가안정관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명절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함께 살피고,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따뜻한 온기나눔을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도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쾌적하고 편안한 연휴를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 확충, 지방도와 고속도로 주변의 포트홀, 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등 점검 정비 등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가동·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서비스도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속버스(5일간/100대(전국)), 시외버스(1일 10대)를 확대 운영하고, 철도는 5일간 73회(호남선 31, 전라선 32, 장항선 10)를 늘려 운행한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3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수소산업 소부장 기업 간담회

도, 6개 수소기업과 기업 애로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도청에서 도내 수소 기업인 △두산퓨얼셀(주), △일진하이솔루스(주), △(유)코스텍, △비나텍(주), △(주)아레스, △테라리크스(주)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군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 소부장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6차 수소경제 위원회를 통해 수전해, 수소 충전소, 수소 운반차량, 액체수소 운송선,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수

소터빈, 암모니아 합성·분해, 수소 저장·배관, 수소엔진 등 10대분야 40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소 소부장 관련 6개 기업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기술개발 및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수소전문기업 1호인 두산퓨얼셀 문상진 상무는 주요 추

진 사업인 인산형 연료전지 제조에 대한 상황과 국책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을 설명하며, 이번 간담회와 같은 소통의 자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소연료전지 전문 스타트업 기업인 테라리크스 고성훈 상무는 최근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자사 제품(공랭식 연료전지 스택, 무시동 전원장치 등)을 선보인 경험과 함께 기술분야 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비나텍 정한기 사장을 비롯한 기업들은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에너지산업육성단장,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 군산대 화학공학과 심종표 교수와 함께 산·학·연·관 협력체계, 지원정책, 인력양성 등 수소 소부장 산업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등 기반 고도화 사업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신속 추진,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도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수소산업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서울장학숙 멘토링 진행

전북 지역 고교생 초청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은 29일부터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고교생(1학년생 22명·남학생 10명, 여학생 12명)을 초청, 입사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을 진행해 입사생들이 애乡심을 갖게 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22명의 고교생 멘티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방문하여 대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사생 멘토들은 자기주도학습법 등 입시와 대학 생활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이들은 경북공, 국회의사당 등 서울 곳곳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사생 멘토 단장 유정호 학생은 "이번에 지역 후배들에게 서울 주요 대학에 대해 소개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 특히, 진학 멘토링, 공부 방법, 자기관리 등 실제 선배로서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매

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민분들에게 받은 혜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전주 유일여고 1학년 운영정 학생은 "이번 멘토링 행사 중 대학 견학을 통해 공부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고, 장학숙에 재학 중인 멘토 선배님들과 소통하며 대학 생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수 관장은 "이번 전북지역 고교생 초청 멘토링 행사는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장학숙 입사생들이 고향과 후배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멘토링 행사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2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멘토와 멘티 모두 미래에 대한 꿈과 도전정신을 키워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하세요"

전북자치도, 2월 1일부터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접수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계작물 선지급을 위하여,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리접수를 추진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 도모, 논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한 정책으로, 지급대상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동계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 재배 시 50만원/ha, 하계에 식용 옥수수 재배 시 100만원/ha, 두류, 가루쌀 재배 시 200만원/ha, 조사료 재배 시 430만원/ha를 지급받는다.

단일재배와 달리, 지급대상 전략작물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원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인센티브 대상작물로는 동계에 밀·조사료, 하계에 두류·가루쌀 총 4가지가 있다.

작년에 첫 시행된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올해도 확대 운영된다.

기존 하계 논콩 품목에 추가로 완두, 녹두, 잡두, 팥을 포함해 두류로 확대

하고, 하계 두류 지급단가는 100~200만원/ha로 인상 지급한다.

하계 식용 옥수수(100만원/ha)도 지급대상 품목으로 신규 추가됐다.

하계조사료 대상 농지는 쌀 감축에 참여했던 경영체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도 벼 재배농지 및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농지 뿐만 아니라, 2018~2023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자체 쌀 생산 자율감축 협약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까지 포함한다.

또한, 기존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중복지급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작기를 달리할 경우(동계/하계)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농지도 지급대상 농지로 포함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동계작물 4~5월, 하계작물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등록자 확정 후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과장은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쌀 수급안정 도모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이며, 작년 첫 시행 후 올해도 확대되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